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6

참사랑의 어머니 참어머님

김순민 글 · 인미 그림

효정문화원
孝情文和苑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6

참사랑의 어머니 참어머님

김순민 글 · 인미 그림



효정문화원
孝情文和苑

사탕과 과자가 무척 귀할 때였어요.
참어머님께서는 사탕과 과자가 선물로 들어오면
하나도 뜯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두셨어요.
그러고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식구들에게
선뜻 내주며 힘을 주곤 하셨어요.



“밤이 늦었는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구나.”



성화 학생들이 교회 성전 한쪽에 상을 펴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 좀 먹으면서 공부하렴.”
“이건 자녀님들 드리라고 선물로 들어온 과자잖아요.”
“너희도 내 자녀들이란다. 참부모에게는 모두가 아들과 딸이야.”
“감사합니다, 참어머님.”

“내일이 효진이 생일이지요?”

“예, 참어머님.”

“그럼,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식구들 중에 생일인 아이들도 초대해서 함께 생일파티를 해 줍시다.

돈이 없어 생일파티도 못 해 줄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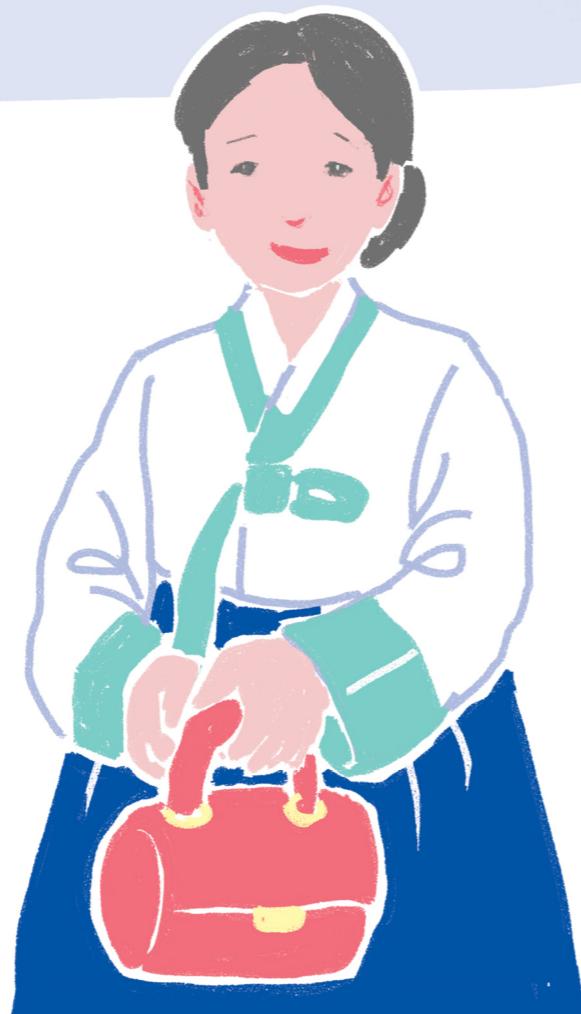


참어머님께서는 자녀님과 생일이 같은 아이들을 불러 생일파티를 함께해 주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식구들도 참자녀님과 마찬가지로 참어머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축하해 주신 것이지요.



하루는 참어머님께서 막 전도 활동을 마치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식구의 신발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 식구는 발가락이 흘끔 보일 정도로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참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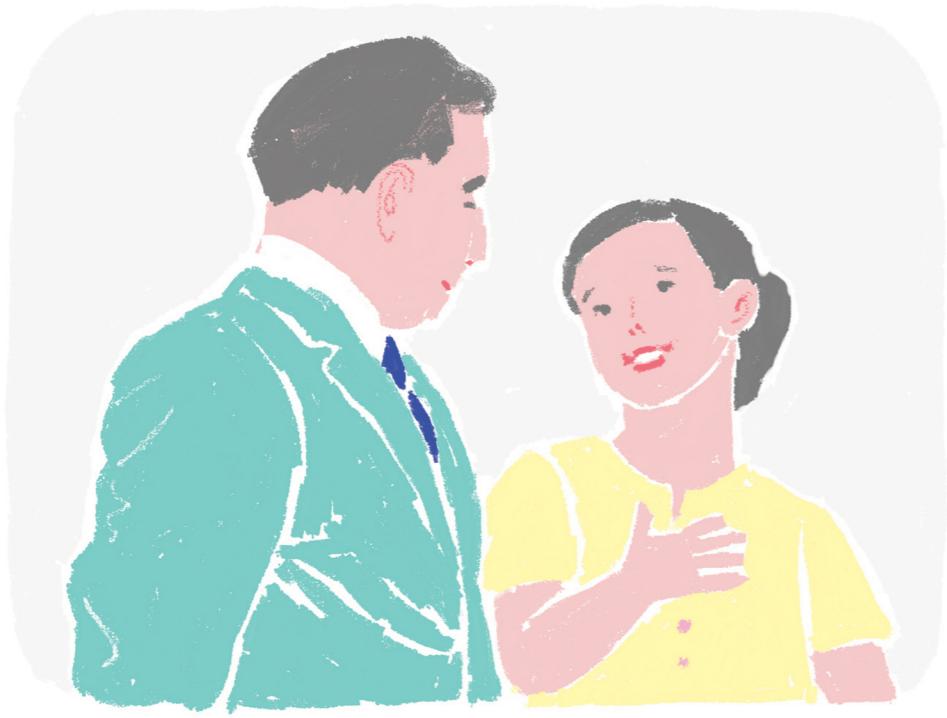
“다행히 발에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참어머님!”
“아! 잠깐만.”



참어머님께서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구두에는 이 가방이 어울리겠어요.”

참어머님은 어려운 식구들을 보시면 입고 계시던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까지 주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참어머님께서 커다란 보자기들을 꺼내 옷을 싸고 계셨어요.

참아버님께서 궁금해 하시며 물어보셨어요.

“뭘 하려고 그래요?”

“이건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보낼 보따리들이에요.”

외국에 나가 원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낼
옷 보따리를 싸고 계셨던 거예요.

참어머님은 외국에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입으며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늘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교회 행사로 선교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옷을 사러 갑시다.”

참어머님은 선교사들을 데리고 큰 옷가게에 가셨어요.

“선교사님은 이 옷이 잘 어울리겠어요. 한번 입어 봐요.”

참어머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어울릴 만한 옷을 직접 골라 주셨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에게 어울리는 옷이 좀처럼 보이질 않았어요.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 다니다 보니
참어머님의 다리가 통통 부어 있었어요.

옆에서 참어머님을 모시는 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참어머님, 다리가 너무 부으셨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닙니다. 아직 선교사님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골라 주지 못했어요.”

참어머님은 끝끝내 그 선교사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 사 주셨어요.
이렇게 참어머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사랑을 주셨답니다.





참어머님께서 옷장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옷장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 함께 나가야 되니
어서 준비하세요.”
“네, 옷만 갈아입으면 돼요.”



참아버님께서 깜짝 놀라 물으셨어요.

“아니, 당신 옷이 다 어디로 갔어요?”
“식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 주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전 괜찮아요.”

빙그레 미소 짓는 참어머님을 보시며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식구들의 어머니인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했을 때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에 가게 되셨어요.



“자, 선물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그동안 고생한 참어머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없는 돈을 모아
작은 알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사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어머님의 손가락에 반지가
온 데 간 데 없는 거예요.
참아버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반지가 어디로 갔어요?”
“가진 어디로 가요? 훌러갔지요.”

그마저도 어려운 식구에게 내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듯이,
참어머님께서는 식구들을 위해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셨어요.



“참어머님, 이번에 가실 나라는 세네갈입니다.”
“그래, 그 나라가 많이 가난해서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 치료도 못 한다면서요?”



참어머님께서는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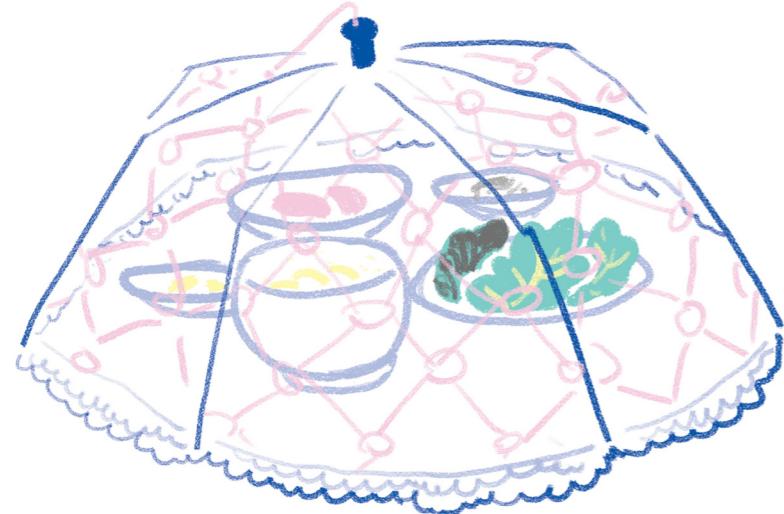
그래서 그 나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전달하셨어요.
또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구해 주셨어요.
준비해 간 것들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참어머님께서는 전 인류의 어머니이자
참부모이셨어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참어머님이셨지만,
정작 참어머님의 생활은 아주 검소하셨어요.
점심 밥상을 받으시며 참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남은 밥을 가져오세요.”
“참어머님, 새로 지은 밥을 드세요.”
“남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부터 먹어야지요.”

참어머님은 음식을 소중히 여기시며
남은 음식도 버리지 않고 다시 드셨어요.



참어머님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식구들을 데리고
햄버거 가게에
가셨을 때였어요.



“잘 먹었습니다. 참어머님.”

햄버거를 다 먹은 식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어머님께서 뭔가를 가방에 넣고 계셨어요.

“케첩이 남았어요. 교회로 가져가면 먹을 수 있겠어요.”

참어머님은 남은 케첩도 버리지 않고 알뜰히 챙기셨지요.

현금 봉투를 쓰시려던 참어머님께서 연필을 찾으셨어요.

“연필이 어디 있나요?”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아니, 연필로 쓰려고요.

그럼 나중에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참어머님은 현금 봉투도 연필로 썼다가
나중에 지우고 다시 쓰셨어요.

늘 절약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식구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참어머님!
우리 모두의 참사랑의 어머니시랍니다.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6

참사랑의 어머니 참어머님

초판 1쇄 발행일 · 2021년 2월 1일

글 · 김순민 | 그림 · 인미
펴낸이 · 윤영호 | 펴낸 곳 · 효정문화원

편찬위원 · 정원주 윤영호
교정 및 교열 · 이길연 | 진행 · 홍성민 | 제작 · (주)HJ스마트에듀 더공감
감수 · 김황제 이길연 도현섭 최정은 서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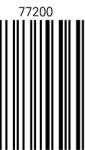
출판사 · 모심(HJ스마트에듀) | 등록번호 · 제2020-000351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안길 6 우정빌딩 3층 (서교동)
전화번호 · 02-326-1240

ISBN · 979-11-973265-6-1

이 책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값 13,000원

KC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9 7911197 326561
ISBN 979-11-973265-6-1
ISBN 979-11-973265-9-2 (전 7권)

